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5년 3월 15일

제 17 호

• 발행인 : 임국희 • 편집장 : 황인우
• 주소 :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3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2-784-5040 / 070-7501-3842

제8대 아나운서클럽회장에 임국희 아나운서

2015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

6년 재임 김동건 전 회장 '여성 회장을 맞을 때가 됐다. 클럽 발전과 화합에 힘써주길'



선배 존경, 후배 사랑의 마음을 나누며 70여 명의 회원이 함께했다

아나운서클럽에도 여성시대가 열렸다. 3월 4일(수) 오후 6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열린에서 열린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2015정기총회 및 제8대 회장 취임식에서 임국희(전 MBC) 아나운서가 김동건(전 KBS) 회장에 뒤를 이어 제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선배 존경, 후배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자리'에는 황우겸·전영우(전 KBS), 박중세(전 TBC), 최만린(전 KBS) 고문, 김규홍·박찬숙·이계진(전 KBS) 부회장과 새누리당 의원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선교(전 MBC) 회원, 대구에서 올라온 이후재(전 KBS) 회원, MBC 전직 여성 아나운서 위주의 모임인 초록회 회원들을 비롯해 KBS 아나운서실 운영미 실장, febc 환경은 편성국장, KBS 윤지영 아나운서연합회장과 각 방송사 현역들이 대거 참석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70여 명의 참석자들은 선후배간의 화합과 아나운서클럽 위상 제고

에 힘써온 김동건 전임 회장과 '젊은 사고의 소유자'로 40년 넘게 최고의 진행 솜씨를 보여주며 여성의 귀감이 되었던 임국희 신임 회장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1961년 KBS에 입사한 임국희 아나운서는 1964년 MBC가 창립할 때 자리를 옮겨 <한밤의 음악편지> DJ로 성가를 높였다.

1974년 프리랜서 선언 후 2002년까지 MBC <여성살롱 임국희예요>, <팜스 퍼레이드>, SBS <달빛 노래>, <호주머니경제>, tbs <뮤직 투 뮤직>, <교통시대>, PBC <서울에서 세계로> 등을 진행하며 MBC에 골든마우스를 제막한 대표적인 여성 아나운서로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아나운서클럽 부회장을 지냈다.

2009년 3월 30일부터 6년간 재임한 제7대 김동건 회장은 '그동안 협조해주신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 이제 우리 클럽도 여성 회장을 맞을 때가 되었다. 40년 넘게 방송해온 훌륭한 방송인이자 클럽 부회장으로 힘을 보태준 임국희 아나운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화합에 힘써 클럽 발전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국희 회장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올해 제가 관운이 들었는지 대단한 자리에 앉혀주시네요. 원래 걱정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어제는 잠 못 이루었습니다. 남들이 저 보고 인복이 많다고 합니다. 부디 제가 인복이 많음을 증명해 주십시오."라며 회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2면으로 계속)

취/임/사

나의 인복人福,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임국희 신임 회장
1938년 중국 하얼빈 출생
1956년 경기도고, 1960년 성균관대 사학과 졸업
1961년 KBS 입사
1964년~1974년 MBC 아나운서
1995년 MBC 초록회 회장
2001년 한국아나운서클럽 부회장
2003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인사합니다. 지금부터 저를 '사단법인 아나운서클럽 8대 회장 임국희'로 불러 주십시오.

아나운서클럽도 꽤 역사가 있습니다. 강찬선 선배님, 황우겸 선배님, 임택근 선배님, 강영숙 선배님, 전영덕 선배님, 최계환 선배님, 전영우 선배님, 박중세 선배님, 최만린 선배님, 그리고 김동건 전임 회장님. 이름만 들어도 그립고, 또 무게가 느껴지는, 긴장이 되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 같은 줄에 감히 제가 서게 된다니 영광스럽고 겁도 납니다.

'어떻게 하나?' 밤새 걱정했습니다. '녹록치 않은 세상,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게 대견하다. 용하다!'라고 스스로 저를 달랬는데, 자세히 생각하니 그게 모두 다른 분의 도움 덕분

에 겨우 여기까지 살아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복이 많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보고 인복이 많다고 합니다. 신세진 분들에게 고마움에 보답은 다 못 했지만, 어렵게 생각되는 8대 아나운서클럽 회장의 길을, 그 인복을 믿고 씩씩하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인복의 '사람 인신자'는 바로 부드럽고 따뜻한 덕성을 가지신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과, 깨끗하고 맑은 지성을 가지신 후배님들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인복, 감사드리고,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제16대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에 KBS 윤지영 취임

500여 회원과 함께 크고 빛나는 일보다 작지만 가치 있는 일에 힘쓰겠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최초로 여자 아나운서가 회장을 맡았다.

2월 23일, 제18대 KBS아나운서협 회장인 윤지영 아나운서가 전임 신동진(MBC) 회장에 이어 임기 2년의 제16대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에 취임했다.

이날 KBS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아나운서클럽 김규홍 부회장과 박민정 사무총장, 이혜옥 운영위원, 그리고 KBS 권순우 편성본부장, 운영미 아나운서실장, 이현진 KBS 노조 위원장, 권오훈 언론노조 KBS 본부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해 MBC 김범도, SBS 이병희, OBS 김준우, CBS 김은영, tbs 나선홍, febc 송옥석, PBC 김부궁 협회장과 함께 이끌어갈 아나운서연합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윤지영 신임 연합회장과 신동진 전 회장

윤 회장은 "앞으로 크고 빛나는 일을 찾기보다 작지만 가치 있는 일인 '아나운서다움'을 찾아가는 실천을 해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1997년 공채 24기로 입사한 윤지영 아나운서는 <사랑의 리퀘스트>, <여유만만> 등을 거쳐 현재 1TV <사랑의 가족>과 1라디오 <공부가 재미있다>를 진행하고 있다.

2분기 정례모임 5월 28일 (목) 오후 6시 30분 열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클럽 회원, KBS MBC 사우회에서 활약

KBS사우회 감사 윤대작 부회장 김상근 이사 이인숙 김규홍 김지문
MBC사우회 감사 임국희 부회장 임주완 이사 양진수 박민정



윤대작



김상근



이인숙



김규홍



김지문

2월 23일 열린 KBS사우회(회장 전봉찬) 정기총회에서 아나운서클럽 윤대작 회원이 감사, 김상근 회원이 TV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여성이사로 선임된 이인숙 회원과 연임된 김규홍, 김지문 이사 등 모두 5명의 클럽 회원이 활동 중이다.

MBC사우회(회장 김수량)에도 임국희 감사, 임주완 부회장, 양진수, 박민정 이사 등 4명의 클럽 회원이 활동 하고 있다.

KBS사우회 윤대작 감사는 1968년 문화공보부 1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2002년까지 근무하며 전주방송총국장을 지냈고 KBS복지재단 사무국장, 원광대 겸임교수, 방송위원회 연예오락부문 심의위원장을 역임했다. 1976년 입사한 김상근 부회

장은 <TV는 사랑을 싣고>, <체험 삶의 현장> 등을 기획·연출했고 위성방송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나사렛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인숙 이사는 1973년 입사, 78년 PD로 전직해 2009년 정년퇴임 후 EBS 경영평가위원, KBS미디어 기획위원을 거쳐 유니크미디어 이사로 재직 중이다. 1968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하며 사회교육국장을 지낸 김규홍 이사는 아나운서클럽 사무총장을 거쳐 2009년부터 클럽 부회장을 맡아왔다. 1969년 입사한 사우회 부 편집장 김지문 이사는 위성방송국장, KBS미디어 이사를 지냈으며 2004년 퇴직 후 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김경란 아나운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부부 결혼 축의금을 남수단 학교 건립기금으로 기부



김경란 아나운서와 김상민 의원 결혼사진

신혼부부를 향한 축복이 아프리카 남수단의 학교 건립기금으로 승화되었다.

1월 6일 결혼식을 올린 김경란(전 KBS) 회원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상민 의원이 내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남수단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자 축의금을 하객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김경란 회원은 2011년 초록우산 홍보대사로 선정된 후 2012년부터 매년 수단을 방문하며 교육지원과 봉사활동을 해왔고, 김상민 의원 역시 국내 최대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인 'V 원정대'의 설립자로서 나눔 활동에 앞장서왔다.

2001년 27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김경란 회원은 <뉴스 9> 앵커, <스펀지>, <생생 정보통>, <사랑의 리퀘스트> MC로 활약하다 2012년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현재 MBN <어울림>과 tvN <고성국의 빨간 의자>를 진행하고 있다.



전임 김 회장에게 감사패 증정



전영우 고문의 건배사



그 동안 고맷습니다



클럽 창립자인 황우겸 고문의 축사



KBS 한상권, 이수민, 이규원 부장



김상준 감사의 감사 보고



정흥숙 회원의 축시 암송



모두가 임국희 회장과 김동건 전임 회장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성선경 부회장의 취임 인사



박중세 고문



최만린 고문



김규홍, 이병혜, 한선교, 박찬숙, 임주완 회원



SBS 이병희 협회장



KBS 윤영미 실장



MBC 하지는 부장



febc 송옥석 협회장



이정부 회원



임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MBC초록회원들

총회 시모저모

참석과 회비 납부가 조직의 생명이라고 강조한 아나운서클럽의 설립자 황우겸 고문은 축사에서 사단법인 추진, 회보 발행 등의 족적을 남긴 김동건 전임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강자强者 임국희 회장'은 국화꽃의 향기 넘치는 이름처럼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했고, 전영우 고문은 새 회장을 적극 돕자며 건배를 외쳤다.

김동건 회장이 고문, 임국희 부회장이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공석이 된 부회장 자리에는 '장애인의 어머니'로

불리는 성선경(전 DBS) 회원이 선임되었다. 1964년에 KBS 입사한 성선경 부회장은 65년 DBS 개국요원으로 이적해 74년 퇴직 후 사회복지법인 동천 상임이사로 제 11회 비추미여성대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로써 아나운서클럽 제8대 집행부는 임국희 회장을 위시해 김상준(전 KBS) 감사와 변웅전·차인태(전 MBC), 김규홍·박찬숙·이계진(전 KBS), 성선경(전 DBS) 부회장,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으로 꾸려졌다. 또한 운영위원 겸 회보 편집위원으로 이해옥·황량·황

인우(전 KBS), 이형균(전 MBC) 회원과 함께 1975년 공채3기 아나운서로 출발, 현재 서울 정심초등학교 교감인 채영신(전 KBS) 회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1991년 '아나운서동우회'로 시작, 2005년 사단법인화한 한국아나운서클럽은 강찬선·황우겸(전 KBS), 임택근(전 MBC), 전영우(전 KBS), 박중세(전 TBC), 최만린·김동건(전 KBS) 회장과 강영숙·전웅덕(전 MBC), 최계환(전 TBC) 고문 체제로 이어져왔으며, 회장은 관례상 고문진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해왔다.

반갑습니다

CBS 여자 아나운서 모임

'딸딸딸딸' 연극무대에서 이어진 40년 우정

1978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나운서들이 짧은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제목은 '딸. 딸. 딸. 딸'. 배우들이(?) 모두 여성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등장인물은 여성 위주로 각본이 씌어졌고 단, 극 전개에서 꼭 필요했던 청일점은 남자 아나운서가 특별출연했다.

기독교 신앙이 돈독한 집안의 첫째 딸(변순복)은 약혼자(김준석)가 불심 깊은 집안 자제라 고민 중이고, 전도사인 둘째 딸(장미영)은 아예 결혼할 뜻이 없어 부모 속을 태우고, 대학생인 셋째 딸(허미경)은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등 밖으로

만 댘돌아 얼굴 보기 힘들고, 사춘기 열병을 앓고 있는 넷째 딸(신동란)은 공부는 뒷전인 채 소소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딸 부잣집의 근심 걱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중풍기와 치매기가 있어 늘 "배고파 밥 줘!"라고 밥 타령하는 시어머니(한영호) 뒷바라지와 회사일로 매일 밤늦게 귀가하는 남편으로 인해 어머니(변춘애)의 푸념과 한숨은 끝이 없다.

이 작품의 대본은 당시 소설가이며 CBS 프로듀서였던 유홍중 선생이 썼고, 연출은 이지연 아나운서가 맡았다.

공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A공개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는데, 막이 내리자 뜨거운 박수와 함께 관객들이 할머니 앞으로 모여드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극 중 할머니가 썼던 털모자를 뒤집어 자루처럼 만들더니 한 사람씩 손을 넣었다. '뭉지?' 하는 순간, 털모자에 수북이 쌓인 건 지폐였다. 예상치 못한 해프닝에 놀랐지만 그날 밤 그렇게 수금한(?) 액수는 당연히 전체 회식

비로 쓰였다.

우리가 연극을 한 지 37년이 흘렀다. '그 때 어떻게 해서 연극을 했지? 매일 방송하라 분주했을 텐데 무슨 힘이 넘쳐 일을 저질렀을까?'

물론 그 이유는 저마다 감춰진 '끼'를 발산하고픈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무엇보다도 열정의 '기'와 속칭 '끼'를 합하면 어떤 재미가 있는지 그 모미를 알고픈 사람들이 단합했다는 것이 소중한 여겨진다.

그 때 시도한 단합은 그 후로도 효력을 발생해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이어주고 있으며 그런 동질성은 마음만 먹으면 또 다른 단합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1980년 12월 언론통폐합 후 흩어졌다가 1988년부터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만나고 있다. 경조사와 생일도 챙기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 동안 나는 대화들, 앞으로 나눌 대화들, 연극에서처럼 우리의 대화는 계속될 것이다.

문득 상상해 본다. 예술적 자기 표출의 욕구가 다시 발동한다면 더 늦기 전에 한번 더 돌아보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 그 때 그 사람 지금은...? |

1970년대 최초 여성 야구 캐스터로 활약한 한영호는 미국에서 큰 농장 경영.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의 이지연은 여전히 여러 채널에서 방송 중. 1970년대 최고의 팝송 프로그램 <young 840>과 <꿈과 음악 사이에>의 DJ 이종은은 한국어 교육가. 모태 신앙으로 신심 깊고 다재다능한 장미영은 명일동 교회 목사님. 애교 많고 어린이를 사랑하던 어린이 프로그램의 공주 차기정은 사업가. CBS에서 국장으로 정년퇴직한 변춘애는 프리랜서 방송인. <황인용·강부자입니다>를 연출했던 유은하는 특강도 하며 프리랜서 PD로 활동. 탁월한 영어실력으로 팝송과 번역가로 활동하던 신동란은 미국 공무원.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인 허미경은 프랑스 유학 후 디자이너. 풍부한 성량을 지닌 정인숙은 캐나다에서 방송하다가 회사원. 우아한 개성을 지닌 유동주는 영국 유학 후 성공회대학교 교수. 통합 후 <뉴스파노라마>를 진행했던 배유선은 대전 KBS 퇴직 후 베이커리 경영. 그리고 KBS와 SBS에서 활약한 필자 변순복은 KBS FM <가정음악>, <노래의 날개 위에> 등을 거쳐 8년째 KBS 한민족방송 <문화한마당>을 진행하고 있다.

글/ 변순복 (전 SBS)



왼쪽부터 이종은, 필자 변순복, 변춘애, 정인숙, 배유선, 유은하, 차기정

초대석 이계진(전 SBS) 부회장

“나무는 사람은 밤나무처럼 주변이 울창하지요”

이재성(이하 이), 박소현(이하 박): 안녕하세요! KBS 42기 신입 이재성, 박소현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 8일, 1기 출신 대선배이신 이계진 부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선배님이 1996년부터 농사짓고 전원생활 하시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자택으로 직접 찾아뵙는 행운을 누렸지요.

이: 많은 분들이 ‘이계진 아나운서!’ 하면, <11시에 만나다>,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아침마당>, <연애가 중계>, <체험 삶의 현장>, <TV내무반 신고합니다>, <한밤의 TV연예> 등을 떠올리실 거예요.

박: 1973년 KBS 공채 1기로 입사한 이계진 선배님은 1983년 대한민국방송대상 개인상 MC부문상을 수상한 인기 아나운서로 1992년 SBS 아나운서실장을 지내다 1994년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2004년 국회에 입성해 제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정치활동을 여쭙보았을 때 국어기본법 통과와 한글날 국경일 재지정을 이루어낸 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시는 선배님의 모습을 보니 ‘역시 아나운서 출신이구나.’ 싶었어요.



법정선배의 유발상좌인 재가불자 차인 이계진 부회장이 직접 우려준 차를 마시며 다담을 나누는 KBS 새내기 박소현(가운데), 이재성 아나운서

이: 지금은 국방FM 정책, 시사 프로그램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96.7MHz 월~토 16:00~ 17:55)>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2013년 4월부터 매일같이 곤지암에서 서울 용산까지 서너 시간을 운전하며 생방송을 진행하시니 휴일이 정말 금쪽같으실 텐데 저희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곳, 기억나시죠? 선배님의

어머님이 예전에 사용하셨고 지금은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담소를 나누는 곳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곳이 어머니의 품처럼 참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이: 창밖의 운치 있는 풍경과 함께 선배님께서 직접 우려 주셨던 녹차와 보이차의 그윽한 향도 좋았어요! 법정선배님의 유발상좌有髮上座인 이계진 선배님은 진정한 재가불자在家佛子 차인茶人이신 것 같아요. 또한 아나운서 입문서부터 소설까지 책도 10권이나 낸 작가이기도 하니 참 대단하시죠!

박: 선배님께서 아나운서의 길을 걷게 되신 사연도 기억에 남아요. 군복무 중 채용공고를 보고는 후배에게 전화해 PD 지원서를 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후배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표준어도 쓰고, 대학방송국 활동도 잘했으니 아나운서 하라’며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군복을 입고도 실력만 있으면 KBS 붙을 수 있습니다. ㅎㅎ

이: 저는 아직까지도 사전을 들춰가며 장단음을 찾아 보신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말을 바로쓰기 위한 열정을 후배로서 열심히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죠. 사실 선배님께서 ‘어디 이 씨냐?’고 물어보셨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본관을 말했다가 “경:주 이: 씨겠지!”라며 바로잡아 주실 때 ‘아차!’ 싶었습니다.

박: 그래서인지 요즘에 부쩍 장단음을 지키려는 것 같던데요?

이: 맞아요. 요즘에는 카페에 가서도 “아이스커피에 얼음은 적:게 넣어주세요.”라고 해요. 끊임없이 공부하며 아나운서로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박: 마지막에 선배님께서 산꼭대기에 외톨이처럼 들성들성 솟아있는 낙엽송과 군집을 이루고 있는 밤나무를 비교해주시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하셨죠. 밤나무는 열매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위에 나무들이 퍼지게 되는 반면, 낙엽송은 심은 자리에 그거 하나밖에 나지 않는다고 해요. 평소에 나누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혼자뿐이지만, 나누고 사는 사람은 주변이 울창하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선배님의 말씀처럼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아무리 바빠지더라도 초심 잃지 않고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이: 저는 선배님의 재치 있는 입담을 본받고 싶어요. 인터뷰 내내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재밌게 해주셨잖아요. 재치 있고 따뜻한 KBS 42기 신입 아나운서,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 박: 후배들에게 따뜻한 마음 나눠주신 이계진 선배님, 그리고 직접 운전하고 안내해주신 황인우 선배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글/ 이재성 · 박소현(KBS) 아나운서

국회의원 시절 국어기본법 통과와 한글날 국경일 재지정 이뤄내 자부심

20년 전부터 곤지암서 농사지며 전원생활 장기범상 1억 쾌척, 저서 10권 낸 열정의 삶

박: 저는 선배님께서 1억 원을 기부해 방송인의 사표師表인 장기범 아나운서를 기리는 <장기범상>을 제정하셨다는 게 놀라웠어요.

뿐만 아니라 장기범 선생님의 추모식을 도맡아 이끄시기도 하셨던데요.

이: 이계진 선배님이 장기범 선생님을 언급하며 “사람이 곧 방송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지요. 이 말씀 명심하여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 새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뜻이나 어감이 차이가 나는 별도의 표준어 인정>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개기다	개개다	개기다: (속되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개개다: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
꼬시다	피다	꼬시다: ‘피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피다: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끌다.)
놀잇감	장난감	놀잇감: 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따위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 (*장난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
판지	판죽	판지: ((주로 ‘걸다, 놓다’ 함께 쓰여))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 (*판죽: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판전을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그라들다	사그라지다	사그라들다: 삭아서 없어져 가다. (*사그라지다: 삭아서 없어지다.)
섬찔	섬뜩	섬찔: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섬뜩: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속얕이	속병	속얕이: 「1.속이 아픈 병. 또는 속에 병이 생겨 아파하는 일. 「2.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일. (*속병: 「1.몸속의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2.‘위장병’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3.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여 생긴 마음의 심한 아픔.)
허접하다	허접스럽다	허접하다: 허름하고 잡스럽다. (*허접스럽다: 허름하고 잡스러운 느낌이 있다.)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을 가진 표준어 인정>

추가 표준어	구안와사	굽신	눈두덩이	삐지다	초장초
현재 표준어	구안괘사	굽실	눈두덩	삐치다	작장초

‘삐지다’, ‘개기다’가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은 2014년 12월 15일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나 비표준어로 분류하던 ‘삐지다, 놀잇감, 속얕이, 판지’ 등 13항목의 어휘를 표준어로 인정하는 내용의 ‘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널리 쓰이는 ‘삐지다’, ‘눈두덩이’, ‘구안와사’, ‘초장초’, ‘굽실거리다’ 등 5항목을 ‘삐치다’, ‘눈두덩’, ‘구안괘사’, ‘작장초’, ‘굽실거리다’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했다.

또한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달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놀잇감’, ‘개기다’, ‘사그라들다’, ‘속얕이’, ‘허접하다’, ‘판지’, ‘섬’, ‘꼬시다’ 등 8항목이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2011년 ‘짜장면’, ‘맨날’, ‘눈꼬리’ 등 39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했고, 작년 10월 27일에는 한글맞춤법 문장부호를 26년 만에 개정, 발표한 바 있다.

방송가 소식

방송 20년, 내 인생 하프타임에 주어진 선물들!

미국 어학연수로 새로운 세계에 견문 넓히고, 대구 광주 지역 돌며 삶이 녹아낸 질편한 사투리의 매력 발견

조미숙(광주fbc)

2015년은 극동방송에서 근무한 지 벌써 20년이 되는 해이다. 내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갈망이 가득할 때 작년 한 해 나는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았다. 짧지만 미국 어학연수 기간이 하나의 선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 발령을 통해 목포에서 대구로, 다시 광주로 이동하면서 그 전에는 몰랐던, 삶이 녹아진 질편한 사투리의 매력을 발견한 것이다.



조미숙 부장이 방문했던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물론 표준어 사용과 올바른 방송언어를 구사해야 하는 것이 아나운서의 본분이지만 삶이 밀착된 그들의 언어를 듣고 삶을 이해하며 그것을 올바른 언어로 풀어내는 것 또한 아나운서의 의무가 아닐까 싶다.

작년 극동방송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각 지사에서 11명의 언어연수생들을 선발하고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 잭슨시에 위치한 벨헤이븐 대학에서 영어 학습과 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나도 그 일원으로 미국 땅을 밟았다. 덕분에 풋풋한 미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캠퍼스의 낭만도 즐길 수 있었고 뉴욕과 시카고, 뉴올리언스, 텍사스, 샤를로트까지 미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문화를 경험하는 좋은 시간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언어에 대한 부담감과

문화의 장벽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 내가 지내던 곳이 미국 남부 쪽인지라 사투리를 쓰는 분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사투리가 너무 심해 심지어는 같은 미국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풍경을 보면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꿈같은 연수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근무지를 가기 위해 대구행 버스에 올랐을 때 귀에 확 들어온 것은 사투리였다. “그랬다 아이가~~”, “뉘라꼬?” 등 애교 만점인 대구 사투리는 미묘한 음률이 느껴졌다.

영화에서나 듣던 사투리를 모든 사람이 쓰니 마치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온 듯 신기했다. 말을 배운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도 하기에 언어 현지화를 실천한다며 대구 사투리를 따라하다 보니 주위 분

들이 ‘제법 사투리를 한다.’고 좋아해주었다.

그렇게 대구 지역만의 독특한 정서와 문화를 느끼고 익숙해질 무렵 다시 전라도 광주로 발령이 났다. 광주지사에 출근해서도 나를 반긴 것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였다. “오메~!! 반갑소잉~ 대구에서 오셨다고라우~~”

비교적 짧은 시기에 몇 곳을 이동하다 보니 언어의 블랙홀에 빠진 것 같은 미묘한 착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후유증이 생겼다. 억양은 전라도요, 종결어미는 경상도인 미묘한 사투리까지 구사하게 된 것이다. Oh, my goodness!

아나운서로서 다양한 지역을 돌고 문화를 경험한 일은 두고두고 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국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사람의 향기를 전해 주었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구수했던 사투리까지.



남녀 신입 아나운서 1명씩 채용

42기 신입 이재성, 박소현 아나운서가 연수원 교육에 이어 본사 아나운서실에서 기본 역량을 기르는 전문화 교육을 마치고 5월 중순 지역순환 근무를 가기 전까지 현업에 투입되었다.

이재성 아나운서는 1987년생,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를 나왔으며, 박소현 아나운서는 1992년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월 1일부터 <KBS 뉴스9> 앵커에 황상무 기자 김민정 아나운서



1월 1일 프로그램 대개편에 따라 KBS 뉴스9는 황상무 기자와 김민정 아나운서가 맡았다.

1991년 공채 18기로 입사한 황상무 기사는 뉴욕특파원을 거쳐 사회1 부장을 역임했고, 김민정 아나운서는 2011년 공채 38기로 입사, <브라질월드컵 투나잇>과 <KBS 뉴스7>을 진행했다.

한석준 아나운서 KBS미디어 발령

1월 30일자로 KBS미디어 발령을 받았다. 한 아나운서는 KBS미디어에서 제작 관련 업무를 맡으며 아나운서로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김보민, 김남일 선수 내조 위해 휴직

김보민 아나운서가 일본 교토상가 FC로 이적한 김남일 선수를 내조하기 위해 3월부터 1년 휴직을 신청했다.



37년 역대 최장수 아나운서 조일수 국장 퇴임



2014년 12월 30일 퇴임식

1977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수 아나운서로 활동한 조일수 아나운서의 정년퇴직 하루 전인 12월 29일 아나운서실에서 퇴임연을 열었다.

조일수 국장은 정동 사옥부터 여의도, 상암 신사옥까지 37년간 MBC와 함께했다.

황선숙 아나운서 2014 연예대상 공로상 수상



10년 가까이 아침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황선숙 아나운서가 2014MBC연예대상 라디오 부문 공로상을 받았다.

고려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MBC 입사한 황 아나운서는 2011년 연세대에서 보건학 석사를 취득하고 MBC 표준FM(95.9MHz) <건강한 아침 황선숙입니다>(월~토 오전 5:10~6:00)를 맡아왔다.

새해 맞아 TV 뉴스앵커 변화 피해 차미연 아나운서, 정오뉴스로 앵커 데뷔

새해를 맞아 TV뉴스 진행자에 변화가 있었다.

차미연 아나운서가 <정오 뉴스> 앵커로 첫선을 보였다. 아울러 정오뉴스의 최대현 아나운서가 오전 9시 30분 방송되는 <생활뉴스>, 생활뉴스 앵커 김소영 아나운서가 <뉴스24>로 자리를 옮겼다.



김일중 아나운서 <붕어빵> 김국진 후임 MC로 발탁



김일중 아나운서가 <붕어빵> MC로 발탁돼 1월 9일부터 개그맨 이경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05년 입사, 축구 중계를 비롯해 <좋은 아침>, <백년손님, 자기야>에서 활약 중인 김일중 아나운서는 “예능 첫 MC로서 앞으로 예능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입 아나운서 <모닝와이드>에 투입 김윤상 ‘연예특급’ 김선재는 ‘생생 지구촌’

2014년에 선발한 신입 김윤상, 김선재 아나운서가 인턴을 마치고 방송에 투입되었다.

두 사람은 2015년 1월 1일자로 정식으로 아나운서팀에 발령을 받아 2월 초부터 <모닝와이드> 2부에 출연하고 있다. 김윤상은 ‘연예특급’, 김선재는 ‘생생 지구촌’ 코너를 맡아서 진행 중이다.

박은경 아나운서 남편인 이명우 PD가 연출하는 드라마 <편지>에 앵커로 출연하며 내조



이명우 PD가 연출하는 SBS 월화 드라마 <편지>에 앵커로 출연하며 남편을 내조하고 있다.

2000년 입사 후 2002년에 동기생인 이명우 PD와 결혼한 박 아나운서는 10년 넘게 스포츠뉴스를 진행했고 현재 <토요특집 모닝와이드> MC, <스위트 뮤직박스> DJ로 활약 중이다.



<안산시민 1000인 원탁토론회> 세월호 참사가 남긴 사회적 과제 다뤄



안산 올림픽기념관에서 세월호 참사가 남긴 사회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4.16 희망찾기 안산시민 1000인 원탁토론회>가 2월 7일 열렸다. 안산 지역의 84개 기관단체가 구성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안산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찾기 위해 마련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안산시는 새로운 안산을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OBS 유진영 아나운서가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2월 28일 방송되었다.



CBS갈라콘서트 <아름다운 열정> '피가로 vs 피가로' 개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젊은 예술가들의 기량과 열정을 선보이는 CBS갈라콘서트 <아름다운 열정>. 올해는 두 명의 피가로가 사랑을 놓고 겨루는 오페라 배틀 '피가로 vs 피가로'라는 주제로 3월 16일(월)과 17일(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임현정이 지휘하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영웅 베이스바리톤 사무엘윤이 모차르트의 피가로, 이탈리아 피렌체극장의 주역가수 바리톤 한명원이 로시니의 피가로를 노래한다. 또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소프라노 임선혜와 젊은 신예 테너 고태영도 출연한다.

CBS는 2014년 창사60주년을 맞아 신춘무대 갈라콘서트 <아름다운 열정>을 기획, 국내 최고의 클래식 브랜드 콘서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설 특집방송 포인트 교통정보 전달

tbs 교통방송이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137시간 연속 '2015 설날교통특집방송'을 진행했다. 설 연휴 전날인 2월 17일 정오부터 23일 월요일 새벽 5시까지 137시간 연속으로 진행된 이번 특집방송은 실시간으로 바뀌는 전국 주요고속도로와 국도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했다. 특히 매 시간 2회씩 포인트 교통정보 코너를 신설해 아나운서들이 청취자들의 문의를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었다.

송정에 아나운서의 <좋은 사람들> 인기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송정에 아나운서가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음악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풍요로운 아침을 열어주는 tbs FM '송정의의 좋은 사람들'은 월~금 9시부터 11시까지 두 시간동안 방송된다.



편성국장에 한경은 방송팀장에 백두현 임명

한경은 아나운서와 백두현 아나운서가 1월 1일 인사에서 서울 중앙사 편성국장과 방송팀장으로 승진했다.

한 국장은 1992년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제주 방송부장과 창원 방송부장을 역임했다. 백 팀장은 2002년 입사해 울산 방송부장을 지냈다.



한경은

백두현

설 특집 14시간 생방송 실시

설날을 맞아 <행복한 고향길 극동방송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14시간 연속 특집 생방송'을 진행했다. 설 특집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진행: 김장환 목사, 최혜심 아나운서)>에는 텔런트 김원희 집사가 교계 최초로 출연해 스타이기 이전에 기독교인으로서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6주기 맞아 <바보나눔 음악회> 개최

김수환 추기경 선종 6주기를 기리는 <바보나눔 음악회>가 2월 3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가 주최하고 평화방송·평화신문이 주관한 이번 음악회에는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해 서울대교구 총대리 조규만 주교, 대전교구 유홍식 주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소프라노 임선혜, 바리톤 송기창, 테너 김정훈, 피아니스트 김정원, 기타 박종호, 그리고 김덕기 지휘의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은총 가득한 무대를 꾸며주었다.



최은경 아나운서 부장 승진 전임 이명학 부산불교방송 총괄국장 임명



최은경 아나운서가 지난해 12월 방송국 전체적인 인사이동에서 아나운서부장으로 승진했다.

1996년 불교방송 공채 6기로 입사한 최 부장은 현재 매일 저녁 추억의 음악들을 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음악이 흐르는 풍경>을 진행하고 있다.

전임 이명학 아나운서는 부산불교방송 총괄국장 보직을 맡아, 지난 2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불교방송 사장(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 취임식(사진) 사회를 보았다.



눈초 翹初 이규향(전 KBS)의 발음 이야기 7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1443년 훈민정음을 창제 하셨다. 한글이란 말은 백여 년 전 언어의 쇼비니스트(chauvinist/독선적 애국주의자)였던 주시경 선생이 '큰 글(한 글/큰 글)'이란 뜻으로 만든 신조어이다. 이는 국가國歌를 애국가愛國歌라고 하는 것과 같은 초애국주의의 소산이다. '한글학'이란 학문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의 학제에서 '한글학과'라고 하지 않고 '국문학과'라고 한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의도는 무엇이였을까? 한자를 모르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나랏말/국문國文을 만들어 가르치려는 훈민訓民의 뜻과 이미 한자로 문자생활을 하던 상류 지식층에게는 팔도八道에서 제각기 달리하던 발

음을 중국의 사성四聲의 성조聲調를 도입하여 표준발음(正音) 작업도 동시에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세종께서는 문헌에 기존의 한자와 새로운 국문國文을 병용하셨던 사실史實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어의 한글전용주의는 세종대왕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겠다.

훈민정음, 고대 인도 음운학에 근거

훈민정음 창제의 기본이 된 음운音韻 이론이 고대 인도의 음운학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고대 인도는 음성에 관한 음운학이 일찍이 발달하여 중국에 불교와 함께 들어와 한자의 음운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이론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세종은 이를 국어에 적용, 좀 더 발전된 이론의 토대 위에서 훈민정음의 창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조선의 개국이념은 유교였으나 왕실에서는 백성과 달리 불교를 신봉하여

훈민정음과 한글은 다르다 - 장단음의 원류

궁내에서 고승高僧을 모시고 법회를 열었다. 우리나라의 원로 국어학자는 이들 승려 가운데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에도 능통한 음운학에 일가견을 가진 인도 유학승에게서 정음 창제의 결정적인 힌트를 얻었을 것이라는 가설假說을 주창하고 있다.

붓다의 공적을 찬양한 '월인천강지곡'과 붓다의 일대기인 '석보상절' 그리고 세종의 의지가, 불교적인 숫자 108자로 된 어지御旨가 모여져 있는 '월인석보' 등 국시國是에 어긋난 불경저술의 대작업은 훈민정음의 창제를 도와주신 붓다의 은혜에 대한 표현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훈민정음 방점 고저장단의 원조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이후 모든 문헌에는 각 글자의 왼쪽에 무점無點/평성平聲(낮은 소리), 일점一點/거성去聲(높은 소리)[·], 이점二點/상성上聲(긴소리):[·:]를 적었는데 이를 방점傍點/

긴소리라고 하였다. 입성入聲은 말의 고저장단과 관계없는 받침이라 무시된 셈이다. 예) "나(평성) ·랏(거성) :말(상성) ㅅ(평성) ·미(거성) - 훈민정음 언해본"

이와 같은 장단의 현상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시기에 철저히 활자화되어 한국어 장단음의 원류가 되어주었다.

훈민정음 이전에도 언어의 특성상 '소리의 길이'가 같으면 뜻을 구별할 수 없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음의 높낮이의 변동이 없으면 연속된 발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파도의 상하운동으로 전진前進를 가능하게 하는 파도타기/서핑(surfing)과 같은 원리라 하겠다.

오늘 날 장단음의 어휘는 1) 15세기 방점성조傍點聲調가 그대로 계승된 장단음 2) 당시의 성조가 뒤바뀐 장단음 3) 당시의 방점을 모방하여 새로 태어난 조선식朝鮮式 장단음의 총화라고 생각된다.



회원 동정

챔피언스투어 투손 콘키스타도르클래식 중계



유협(전 SBS)
SBS골프를 통해 3월 23일 오전 7시부터 챔피언스투어 투손 콘키스타도르클래식 중계를 맡아 방송에 복귀한다.
경희대에서 스포츠학 박사학위를 받은 유 회장은 1982년 MBC 입사, 1991년 SBS로 이적해 아나운서실장을 지내고 2011년 퇴직 후 스마트 KU 골프 파빌리온 골프장 대표를 역임했다.

경기방송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맡아



박찬숙(전 KBS) 부회장
3월 16일부터 경기방송(99.9MHz)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월~금 오전 7:00~ 8:30)'를 진행한다. 1968년 입사한 박 부회장은 최초의 여성 TV앵커이자 <심야토론>, <라디오정보센터>의 명 MC로 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소설가, 사진작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76세의 청춘 <수필문학>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



이성화(전 TBC)
월간 <수필문학> 3월호에 '존칭도 급신'이라는 수필이 추천 완료되어 수필가로 등단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unjena55>)를 통해 방송 말처럼 자연스럽고 친근한 분위기의 수필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던 터라 1959년 입문 이래 인기 아나운서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76세 청춘의 또 다른 시작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창원아카데미에서 '나의 인생, 나의 꿈' 강연



오영실(전 KBS)
경남 창원시가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역에서 마련하는 '2015년 창원아카데미' 강사로 초빙되어 3월 5일 진해에서 '나의 인생, 나의 꿈'을 주제로 강연했다. 1987년 공채 15기로 출발한 오 회장은 1997년 프리랜서 선언 후 2009년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을 수상하며 연기자로도 활약 중이다.

EBS 라디오 <오후 N 음악> DJ로 발탁



서현진(전 MBC)
3월 2일 EBS FM 봄 개편을 맞아 대표 음악 프로그램 <오후 N 음악>의 새 DJ로 발탁되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청취자들과 만나고 있다. 서 회장은 2004년 입사, <불만제로>, <굿모닝FM> 등을 진행하다 작년 7월 퇴사했다.

EBS FM <낭독>으로 10년 만에 방송활동 재개



공정민(전 KBS)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매일 오전 11시 EBS FM <낭독>에서 가족을 주제로 쓰인 명작을 낭독하며 10년 만에 방송활동을 재개했다.
1993년 19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공 회장은 뉴스앵커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C, <세상의 모든 음악> DJ로 활약했다.

임국희 회장 취임 첫 일정으로 임택근 고문 방문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민정 사무총장, 김규홍 부회장, 임국희 회장, 임택근 고문

임국희 신임회장이 3월 6일 회장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김규홍 부회장과 박민정 사무총장과 함께 제3대 회장을 지낸 임택근 고문을 방문했다. 임 고문은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취임식에 참석 못해 미안하다며 전임 회장 김동건 고문에게는 치하의 박수를, 신임 임국희 회장에게는 클럽을 더욱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임 신임 회장은 "잘 생긴 안소니킨 같은 고문님, 강인한 모습을 잃지 마세요."라고 화답했다.

대전MBC 사장에서 제주MBC 사장으로 이동



김창욱(전 MBC)
방송문화진흥회는 3월 3일 대전 MBC 사장인 김창욱 회원을 제주 MBC 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회장은 1984년 MBC에 입사해 아나운서국장을 지내고 2013년부터 대전MBC 사장으로 일해 왔다.

청주 서원대 교양학부 교수로 임용



최남식(전 청주MBC)
충청북도 청주 서원대 교양학부 교수로 임용되어 3월 2일부터 화법과 언어예절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최 회장은 1984년 청주MBC에 입사해 27년간 근무했다.

SBS 월화 <풍문으로 들었소> 출연



백지연(전 MBC)
28년 지기인 안판석 PD의 제안으로 SBS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재벌가 안주인 역을 맡았다. 최근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을 모티브로 장편소설 <물구나무>를 펴내기도 했다.

MBC드라마넷 금토 <태양의 도시> 출연



김성경(전 SBS)
MBC드라마넷 <태양의 도시>에 중장비 사업가로 출연 중이다. SBS 아침드라마 <청담동 스캔들>에 출연한 적이 있는 김 회장은 한층 비중 있는 역할을 소화하며 연기자로 발돋움했다.

SBS 주말 <떴다 패밀리> 출연



오상진(전 MBC)
SBS <떴다 패밀리>에서 미국 입양아 출신 한량을 맡았다. 작년 SBS <별에서 온 그대> 검사 역에 이어 MBC드라마넷 <스웨덴 세탁소>와 MBC <원녀일기>를 거치며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TV조선 <강적들> 합류



김범수(전 SBS)
2월 11일부터 김성경 회원을 비롯해 강용석, 박종진, 김갑수, 이봉규, 박은지가 진행하는 <강적들> MC 군단에 합류했다. 2000년 입사, 2004년 프리랜서를 선언한 김 회장은 현재 코바나 콘텐츠 상무로 재직 중이다.

주말 <MBN 뉴스8> 앵커 맡아



유정현(전 SBS)
1월 17일부터 주말 <MBN 뉴스8> 앵커를 맡았다. 유 회장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SBS 아나운서로 활약한 뒤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정계에 진출해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다음카카오 <2014 올해의 인물>로 선정



손석희(전 MBC)
다음카카오 선정 2014 올해의 인물 1위에 올랐다. 1월부터 11월까지 통합 검색 hit수를 기준으로 검색어 1위 <세월호 침몰>과 함께 손석희 아나운서가 올해의 인물 1위를 차지했다.

<한국방송기자통사> 발간



김성호(전 KBS)
<한국아나운서통사>에 이어 <한국방송기자통사>를 펴냈다. 해방부터 1969년 MBC TV 개국까지 방송보도의 역사와 방송기자들의 면모를 정리한 책이다. 1970년 입사한 김 회장은 다양한 분야를 거쳐 KBSi 대표를 지낸 후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객원교수로 초빙되어 한국소통학회, 광운대 정보콘텐츠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한반도 UN본부> 출판기념회 개최



성대석(전 TBC)
성대석 한국언론인협회 회장이 언론생활 50년을 기념해 2월 27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에서

"아시아의 심장-한반도 UN본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UN의 현황 등을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이끌어 들여야 할 '한반도 제5UN본부'의 유치 가능성과 효과 등을 분석한 책이다.

서기철(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출판기념회는 아나운서클럽 전용덕 고문을 비롯해 김규홍, 박찬숙 부회장과 단국대 석좌교수인 남선현(전 TBC) 회원이 참석했고,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KBS 조대현 사장,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 한성대 이종훈 이사장, 건국대 민병철 교수 등 각계 인사 250여 명이 축하해주었다.

1964년 동양방송(TBC) 공채 1기 아나운서로 출발한 성대석 회장은 앵커를 비롯해 KBS 주미특파원 및 LA지국장, 홍보실장, 중앙대 겸임교수를 지냈다.

1월 21일 향년 79세를 일기로 별세



최정연(전 MBC)
1961년 7월 KBS 입사, 1964년 MBC로 이적해 1973년부터 10년간 MBC아나운서실장,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원주 MBC 사장을 지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정오뉴스와 의식 중계에서 두각을 보였던 고인은 유애리(KBS) 아나운서의 외숙이기도 하다.

Zoom-in 물망초재단 이사장 박선영(전 MBC)

역사의 조난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국군포로 송환과 탈북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통일 밑거름 사업 펼쳐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마세요!'란 꽃말을 갖고 있다. 박선영(전 MBC) 회원이 2012년 5월 역사의 조난자들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사단법인 물망초(이하 물망초재단)를 설립한 지 3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 3월 2일, 그 동안 국군포로 송환과 처우 개선, 탈북 청소년과 대학생의 교육 및 장학사업,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봉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낸 박선영 이사장을 동국대 법학과 교수 연구실로 찾아가 만나보았다.

/ 황인우(전 KBS) 편집장

개학 준비를 해야 할 때 짬을 내어 미국 출장까지 다녀오셨는데도 신입생처럼 발랄해 보이세요.

아직 시차적응도 못했는데, 그렇게 봐주시니 다행이네요.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미국 버클리대학을 방문해 탈북대학생들에게 '우선적 처우'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연수비용에 도움을 줄 시민단체들을 만나고 왔어요. 다행이 반응이 희망적이에요. 지금까지 탈북 대학생 3명에게 1년씩 미국 어학연수 기회를 주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통일시대의 리더로 키워야 합니다.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직접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화여대 법대 4학년 여름방학 때인 197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 1년 반쯤 지나 기자로 전직해 1989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기자 생활 중 박운희에서 선영으로 개명했지요. 1995년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2000년 서울대 연구교수, 2003년 가톨릭대 교수, 2007년 동국대 교수를 거쳐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12년 강단에 복귀해 물망초재단 일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동안 참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물망초재단의 발자취를 정리해볼까요?

2012년 5월 생환 국군포로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곧바로 '꽃망울사업'이란 이름의 탈북대학생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지요. 9월에 경기도 여주에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대안학교인 '물망초학교'를 개교했고, 11월에 서울대 치대와 함께 탈북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무료로 '물망초치과'도 열었습니다.

2013년 4월 역사의 조난자들에 대한 연구·교육·출판을 위해 '물망초인권연구소', 5월에 국군포로신고센터, 9월에 '국군포로송환위원회'를 개설하고 10월에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유해 첫 송환 작업도 해냈지요. 그 해 연말부터 탈북자를 찾아가 맞춤형교육을 하는 '열린학교'를 운영하며 틈틈이 문화학교도 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에는 총회 겸 '물망초의 날' 행사를 열어 수기와 연구논문 공모 결과를 발표했고, 광복절을 맞아 대학생 서부전선 DMZ 걷기, 12월 송년음악회

개최 등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생환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인 '물망초의 집'과 한국전 국제추모공원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일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불러왔잖아요? 특별한 계기는 없고, 굳이 따지자면 전공이 헌법이 게 작용했을 거예요. 헌법에서 중시하는 국가의 개념과 인권에 대한 생각이 바탕이 된 것이죠. '독일이 분단국가가 된 것은 가해국이라 당연한 결과지만 왜 식민 지배를 당한 우리나라가 분단국가가 되었나?' 그런 생각이 영글어졌다고 할까요? 통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저와 이사장이 기부금을 내서 부지를 임대해 학교도 짓고 했지요. 기꺼이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사실 국내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성공하고 돌아온 적은 거의 없어요. 외국에선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선 북한과 관련되었다 하면 인권이 아니라 이념의 문제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전화를 걸어와 회원 가입을 하고 다달이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이 700명이나 된답니다. (참고로,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물망초(2260-8558)의 후원계좌는 SC제일은행 364-20-030012이다.)

'탈북자들의 대모 박선영'을 각인시킨 건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탈북자 북송 반대 농성이었죠. 저희 편집위원들도 위로 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추운 겨울날 가두 천막에서 단식투쟁을 하던 박 선배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2012년 2월 11일부터 2013년 6월 26일까지 연 인원 10만 여 명이 참가해 '중국에 있는 34명의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499일간의 농성을 이어갔죠. 제가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가는 바람에 중단되었지만, 중국이 탈북자를 우리나라에 송환하기로 하는 등 획기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어요. 아울러 UN의 북한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G8정상회담 선언문에 탈북



탈북자들의 대모 박선영 교수가 탈북자들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자 문제 명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지요.

보람과 위협이 상존할 텐데, 잊을 수 없는 일이 정말 많겠지요?

우여곡절 끝에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리고 정착을 할 때 제일 보람이 있어요. 그러나 전화도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것, 그런 게 위협이죠. 북한이 공개적으로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곤 하지만, 크게 마음 쓰지 않아요. 해외에 나갈 때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 할일 하며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하하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산가족상봉에서 국군포로와 전·전후 납북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자면 언제 돌아가셨는지 가족에게 알려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생존해 계시다면 서신왕래 후 상봉하고 그 다음 왕래할 수 있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저희 물망초재단에서 2013년 4월 29일 북한의 탄광 지역에 생존하고 계신 국군포로 113명의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생존 국군포로 송환에 적극 나설 것과 생존 탈북국군포로 37명 전원 훈장수여, 7월 27일 정전기념일을 '국군포로의 날'로 선포할 것, 그리고 중국 단둥(丹東)과 도문에 영사관을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일을 다 하려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우리는 '우리 집', '우리 남편' 식으로 늘 '나' 보다는 '우리'를 붙여 말하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란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적, 홍익인간의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적의식을 회복해야 해요. 여유가 생겼을 때 돕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일반 국민 10만 명이 저희 물망초재단 회원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나누는 삶, 부자가 기부하는 건 아닙니다. 남을 도우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풍부해지고, 내적 세계가 공고해집니다.

| 알림 |

고맙습니다

3월 10일까지 입금 순



클럽 발전 기금 내주신분



김영숙(KBS대구) 100만 원



정흥숙(전 MBC) 100만 원



한선교(전 MBC) 100만 원



황인용(전 TBC) 100만 원



이후재(전 KBS) 30만 원



지승현(전 KBS) 100만 원



안종순(전 MBC) 10만 원

축하합니다

- 강승화(KBS) 5월 16일(토) 오전 11시 30분 KBS 신관 웨딩홀에서 캠퍼스 커플로 만나온 회사원과 혼인
- 김슬애(PBC) 2월 28일 학창시절부터 함께했던 연인과 혼인
- 김윤주(CBS) 2월 10일 득녀
- 유혜영(SBS) 2월 8일 안과 의사와 혼인
- 송정훈(CBS) 2월 4일 득녀
- 안종순(전 MBC) 1월 31일 셋째딸 이유진 양 혼인
- 정세진(KBS) 1월 19일 득남

조의를 표합니다

신동진 MBC 1월 22일 모친상

수고하셨습니다

- 김주하 MBC 2015년 3월 6일 보도국 퇴사
- 최현정 MBC 2015년 2월 6일 라디오국 퇴사
- 오정연 KBS 2015년 2월 5일 퇴사
- 김빛나 PBC 2014년 12월 30일 퇴사



GASTROPUB

☆☆☆ EAT & DRINK ☆☆☆

GASTRO
PUB

☆☆ AMERICAN DINING ☆☆

서래마을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0-2 1F
판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40 아브뉴프랑 2F

CHINESE CUISINE

CHAI 7°7

CHINESE CUISINE CHAI 7°7

서래마을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0-2 2-3F / 청계천점 서울시 중구 수하동 67 미래에셋센터원 B2F
이태원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9-45 호성빌딩 2F / 현대중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64 현대백화점 8F
광화문점 서울시 종로구 도림동 65 센터포인트 광화문 2F